

19일 Market Index			
코스피	5768.01	코스닥	808.89
	(+99.96)		(+14.11)
금리	3.877	환율	1331.80
	(+0.023)		(+0.40)

노화, 운명 아닌 ‘질병’으로 재정의 건강수명 연장 ‘역노화 기술’ 부상

💓 불로장생의 꿈

〈上〉 늙는것도 병이다

취의 노화세포, 선택 제거 가능해져
치매·간섬유화 등 질환 완화 입증
인간의 근본적 노화시계 되돌리는
‘세포 리프로그래밍’ 기술도입 주목

한국은 2024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45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역노화 기술에 기대가 모이는 이유다.

◆ 역노화 연구 어디까지 왔나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다양한 연구를 통해 노화는 유전적, 후성유전적 조절 등에 의해 충분히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지난 2011년, 취의 노화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면 노인성 질환이 개선되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되며

100세 시대, ‘항노화(Anti-Aging)’가 아닌 ‘역노화(Reverse-Aging)’ 기술이 급부상하고 있다. 노화를 생로병사의 운명이 아닌 질병으로 재정의하고, 세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치료제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머지 않은 미래에는 자신의 생체나이 진단을 통해 건강노화, 정상노화, 노화 고위험군 등 정도에 따라 맞춤형 치료와 예방 등 항노화 토탈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메트로경제는 역노화 치료제 부문과 비만 치료제 연구를 중심으로 2차례에 걸쳐 ‘불로장생의 꿈’을 조망해 본다. [편집자주]

충격을 안겼다. 이후 노화세포를 제거하면, 치매, 간섬유화, 심장질환, 근감소증 등 다양한 노인성 질환을 완화할 수 있음이 수많은 동물실험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2024년에는 장기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노화세포가 생기고, 하나의 장기에도 서로 다른 종류의 노화세포가 생기는 것이 보고되면서 장기별·질환별 맞춤형 노화세포 제거 전략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인간의 몸에서 근본적인 노화 시계를 되돌리는 ‘세포 리프로그래밍’ 기술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2006년 야마나카 신야 박사가 유도만능줄기세포(iPS) 기술에 기반하여, 유전자를 일시적으로 발현시키는 ‘부분 리프로그래밍(Partial Reprogramming)’을 통해 마우스의 역노화

가 가능함을 증명했다. 2020년에는 네이처(Nature)지를 통해 야마나카 인자로 노화된 시신경세포의 기능을 되살린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정확한 노화의 진단을 위해 태어난 연령이 아닌, ‘생물학적 나이’ 개념이 도입됐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 몸의 유전자(DNA) 서열 자체는 거의 변하지 않지만, DNA 표면에 화학 물질이 붙거나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패턴을 분석해 ‘후성유전학적 시계’를 찾아낸 것이다. 이를 활용하면 혈액·타액 분석을 통해 생체나이와 노화 속도를 정밀 측정하고 맞춤형 처방을 내리는 정밀 항노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metro

반도체 이익 70% 깎여도, 코스피 6550 적정

외국계 IB, 韓 증시 저평가 분석
JP모건 “선행 PER 역사적 최저치
메모리 관련주 제외해도 매우저렴”

19일 코스피가 1.76% 상승한 5768.01에 마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휘둘리며 장 중 한때 5488.41까지 밀렸다. 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발 수익성과 과잉 투자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60~70%가 사라져도 코스피 적정 지수는 최소 6550선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증시 하락 이면에는 반도체 수출과 외국인 매도 현상이 자리 잡고 있지만, 한국 증시가 지나치게 저평가 됐다는 것이다.

강승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 작성한 ‘코스피 급락, 지지선 추정. 코스피200년 동성지수(VKOSPI) 상승’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향후 12개월 예상 합산 영업이익은 907조원(삼성전자 527조원, SK하이닉스 380조원) 규모다. 두 기업의 영업이익이 362조원(-60%)으로 줄어 든다고 가정할 경우 코스피 예상 영업이익은 730조원으로 감소한다. 강 연구원은 “이를 기준으로 평가한 코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코스피는 전일보다 99.96포인트(1.76%) 오른 5768.01에 마감했고 코스닥지수는 전일보다 14.11포인트(1.78%) 오른 808.89에 마감했다. /뉴스1

스피 지수는 7270포인트, 반도체 투톱의 영업이익이 70% 줄어들어 적정 지수는 6550선이다”라고 판단했다. 그는 “과거 사이클에서 두 기업은 고점에서 저점까지 최대 50~90% 감소했다”면서도 “현재 코스피 지수는 7월 이후 다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상당히 깎이는 걸 이미 반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외국계 투자은행(IB)도 한국 증시가 지나치게 저 평가됐다고 분석한다.

JP모건 한국주식전략팀은 최근 코스피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최근 4배 수준까지 낮아져 역사적 최 저치라고 분석했다.

〈3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



metro



메트로경제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역노화’ 세상에 없던 혁신기술 조명

메트로경제와 메트로신문이 오는 10월2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6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시장은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를 차세대 핵심 성장 축으로 설정하고 빠른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계 첫 역노화 유전자 치료 임상 진입부터 비만·대사 질환 약물의 노화 지연 적응증 확장, mRNA 세포 재프로그래밍, 자기줄기세포 재생의료에 이르기까지 연구 분야가 급격히 다각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혁신 기술은 단순한 신약 개발을 넘어 바이오 뷰티,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예방 의학, 맞춤형 웰니스 영역으로 빠르게 접목되며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역노화 기술은 저속 노화를 넘어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가장 뜨거운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치료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K-제약·바이오의 차세대 혁신 기술을 집중 조명합니다.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국내외 첨단 바이오 기술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항노화·역노화연구개발(R&D) 및 기술 상용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번 포럼에 독자 여러분과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행사명 : 2026 제약바이오포럼
- 주제 :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
- 일시 : 2026년 10월21일(수) 오후2~5시
- 장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metro

강남중심 집값 안정세… 공급주력 성과

국토부, 서울 매매가 상승률 둔화
중장기적 시장 안정화 지속 예상
부동산원, 정부 안정평가와 달리
이달 서울·경기남부 상승폭 확대

정부가 그간의 규제, 금융 등 정책으로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시장이 하향 안정됐다고 자평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확대와 수요감소로 부동산 시장 안정이 강화될 것으로 봤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남·서초·매곡가 가격이 10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서울 매매가격 상승률도 7월 이후 둔화되고 있다.

9월 아파트 매매가격은 강남구가 1.65% 하락했으며, 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1.25%, -0.45%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민간과 공공을 망라해 주택공급에 주력하고, 규제·금융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수요 관리와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과열을 방지했다”며 “그 결과 주택공급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일부 시장 하향 안정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매물이 쌓이며 매수 심리도 꺾였다고 판단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월 8900건에서 6월 7700건, 7월 6600건, 8월 4600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최근 매매물건은 약 7만 4000건으로 올해 초 5만 7000건 대비 30% 증가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거래 비중은 작년 10월 37.9%에서 올해 8월 6.1%로 낮아졌다.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7월 이후 하락했다.

공급 선행지표는 크게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시장 안정 평가와 달리 10월 들어서 서울은 물론 경기 남부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9월 마지막주 0.09%를 저점으로 10월 첫째주 0.12%, 둘째주 0.16%로 2주 연속 확대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의 상승폭이 지난주 0.26%까지 커졌다. 특히 성남 분당구(0.79%)를 비롯해 수원 영통구(0.69%), 화성 동탄(0.66%) 등 경기 남부는 급등세를 나타냈다. /안상미 기자 smahn1@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정부, 브런슨 ‘韓 영토 남쪽 철책선 이남부터’ 발언에 우려 표명
- ▲조갑제 “한동훈에 화력 집중했지만, 단 한 발도 못 맞힌 자충수” /사진 뉴스1

- ▲“김승원 다시 기소” 요구에 서부공소청장 “현재로선 사정 변경 없어”
- ▲김혜경 여사 “아이 키우는 데 온 나라 필요”…모자의료 현장 방문

- ▲박지원 “국토 수호 적극 나서야 진정한 보수”…브런슨 발언 비판
- ▲경찰, 한동훈 자녀 의혹 재수사 범위 검토…정원오 첫 소환조사